

1. 바울은 지금, 자신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갈1:21). 그런데 보고하기를,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갈 1:24)는 것이지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향을 포함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방을 의미하지요.
2. 그런데 22절과 24절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리아에 있는 바울이, 출장 갔던 곳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유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있다!”**고. 이것은, 그의 출장이 성공적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3. 어떤 출장이었을까요? 18절을 보시면, **“그 후 삼 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심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십 오 일을 유할새”**라고 했습니다. 게바, 곧 사도 베드로를 만나는, 15일간의 출장이었지요. 3년만에 간 바울의 예루살렘 출장이었습니다.
4. 그런데 19절 보시면, 거기서 바울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고 변명하지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합쳐보면, 15일 동안 고작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못만났다는 소리입니다.
5.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장이 성공이었다면, 그 이유는, **유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던 다른 사도들은 바울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6. 바울은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가 지금은 그 교회의 믿음을 전하고 있지요. 바울은 사실, 이러한 변화를 사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만난 건 베드로와 야고보 뿐이었지요. 그런데 출장에서 돌아와 보니, 바울이 못만났던 사도들도,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7.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 사울이었다가 사도 바울 된 변화를 두고, 스스로 믿음, 혹은 경건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음은, 바울이 아닌, 그를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못했던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발견되지요.
8. 그들은 변화된 바울을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말로만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도됨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에 있는 교회가 가진 믿음입니다. 이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은, 얼굴로 만나 보는 데서가 아닌,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9.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만나지 못했으면서도, 그가 예수 전파자로 변화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 만으로도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을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어도!
10. 그래서, 바울의 출장이 성공인 이유는, 믿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니지요. 또 베드로를 만나, 자기의 회심과 그간의 성과들을 보고할 수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소문만으로도 유대에 있던 교회가 그간 가져왔던 사울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1. 이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이 믿음이 유대에 있는 교회가 아닌, 바울 개인에게 먼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12. 여기서 복음이란, 그 성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사람에게서 전수받거나, 혹은 누구에게 배운 것은, **“다른 복음”**일 뿐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다름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3. 다메섹 도상에서의 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갑자기 하늘에서 내리는 빛을 받고, 나귀에서 떨어졌습니다. 장님이 되어 버렸지요. 그때 예수께서는 그에게 다그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14. 사람들은, 이 순간에 주목한 나머지, 그 순간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환상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접신했다는 말입니까? 다름 아닌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에게 드러내시는 계시를 마주대한 것입니다.
15. 이 계시의 순간이 거듭남의 모멘텀이지요. 이것은 마치,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놓는 순간이고, 방아쇠를 당겼을 때 햄머가 격발핀을 치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바울이 되는 순간이지요.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는 새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누가 만들어 내시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계시하시니까!
16.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형제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내가 바울이 되었다?”** 아니, 이 변화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거듭남의 변화! 구원! 영생! 중생! 이 변화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17. 이때, 그 계시를 받은 사울이 인간으로서 기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 뿐이지요.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한 일 뿐인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일을 했던 동기가 있다면,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18. 그러나, 이러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셔서, 예수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믿음이란, 바로 그 뜻하지 않은 만남에서, 자기의 공로란 죄 뿐이라는 자각인 것입니다. 그걸 고백함으로써 바울은, 구원의 원인이 철저하게 예수께 있음을 더욱 확증하고 있지요.
19. 그래서 오늘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믿음을 갖게 된 우리들도, 항상 이 변화의 주인공은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낳으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지요.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가 아닌, 자기 자신을 주어로 내세우는 자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뿐이지요.
20.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처음 펼쳐 보았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때 그 “다른 복음”이란, 교회가 자기 자신의 명예에 집중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지나서 바벨탑을 쌓을 때처럼, 자기들의 이름을 지면에 내고자 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실천하는 대단한 인간의 자기 성찰의 일환이지요.

21. 이러한 “다른 복음의 특징”은, 항상 어떠한 조건들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에 있어서! 사울에서 바울로의 변화를 위해서도, 그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켰다고 말합니다. 그 조건이 피를 멀리하는 것이든, 아니면 면죄부를 사는 것이든, 인간이 함으로써 “자기가 했다”라고 이름을 낼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내거는 것입니다.
22. 사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그랬습니다. 율법은, 그걸 지키려는 자의 명예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모습을 경건하다고 말해 주지요.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이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과부와 고아도 돌봐주고...
23.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또 인간에게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지 못할 곳, 곧 구원의 자리에 서는 순간, 그것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장 같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율법을 내 이름을 빛나게 할 행위 조건으로 세우는 것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일인 것입니다.
24. 참 믿음을 가져다 주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의 다른 것을 내걸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 희석하지도 않습니다. 이 한 가지 만을 말하는 바울 때문에, 유대에 있는 교회는 그가 진정으로 거듭났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를 사도로 인정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5. 다시 14절로 돌아가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때는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았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행위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것은 아닌 지를 살펴보아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 곧 종교적 열광주의, 열심당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26. 또 14절 하반절,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라고 했습니다. 열심이 있긴 한데, 이번에는 그 열심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요? 바로 “내 조상의 전통”이었습니다. 바울로 치면, 유대인 조상의 전통, 바울이 속했던 벤나민 족속의 전통이라고도 하겠습니다.
27.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는 상관없는 것들, 또는 그 계시와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에 더 열심을 가질 수 밖에 없지요. 오늘의 우리에게 비유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이 기독교인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불덩이를 품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덩이 중 가장 뜨거운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일 것입니다.
28. 그 뿐이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고자 하고, 자기의 세력을 넓히고자 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이라고 선전하면서, 심지어 자기는 그런 일에 열심 마저 있다고 선전합니다.

29. 여러분, 복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율법조항이나 어떤 의무나,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우리가 이행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의무에서도 해방입니다.

30.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소식을 들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도 믿음은,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